

Saemmul Christian Academy

**SMCA**

2023 가을겨울 소식지

샘물이야기 vol.15



# 목차

## 샘물배움공동체 사람들의 이야기 (3)

- 12학년 졸업생의 고백\_샘물 10기, 12학년 최은 (4)
- 학부모 감사 나눔 [1]\_12학년 학부모 (9)
- 학부모 감사 나눔 [2]\_10학년 학부모 (12)
- 6학년 졸업생의 고백 [1]\_6학년 정다해 (15)
- 6학년 졸업생의 고백 [2]\_6학년 신다영 (17)
- 후원이야기\_공동체가 후원자에게 전한 감사의 마음 (20)

## 샘물배움공동체 교실 속 이야기 (25)

- 은혜샘물유치원: SMCA 주간유치원 (26)
- 은혜샘물초등학교
  - 5학년, 세품아 (세상을 품은 아이들) (28)
  - 3학년의 미션 주제일기 (32)
  - 5학년, 3D 디자인으로 펼쳐진 누군가를 돕는 마음 (33)
  - 2023년, 성품수업 속으로 (39)
- 샘물중고등학교
  - 두 권의 책과 함께 한 9학년의 샘물수업 (44)
  - 10학년, 광복 후 그 시절 신문 (49)
  - 11학년, 2023 나의 10대 뉴스 (53)
- 제 11회 독서마라톤 수상자 (56)

# 샘물배움공동체 사람들의 이야기

[12학년 졸업생의 고백]

# 내가 샘물에서 배운 세 가지

샘물중고등학교 10기, 12학년 최은

(편집자주) 2024년 2월6일(화), 샘물 10기의 졸업예배가 있었습니다. 졸업생 대표로 무대에 오른 졸업생의 답사를 소식지에 전합니다.

말았습니다. 저는 10기 최은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9기 선배들의 졸업을 축하했던 기억이 나는데, 시간이 빠르게 흘러 우리 10기가 졸업할 차례라니 기쁘고 설레면서 한편으로 아쉽기도 합니다.



저에게 있어 샘물은 학창시절을 함께한 친구이자 삶의 지혜를 알려준 선생이고 또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 버팀목이었습니다.

이러한 샘물에서의 시간을 마무리하며, 지금 이 시간을 빌어 제가 그동안 샘물에서 배우고 성장했던 부분들을 나눠 보려 합니다.

## 첫 번째로, 저는 ‘함께 완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샘물에서는 혼자서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닌, 느려도 함께, 멀리 가는 것을 훈련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샘물의 이런 목표가 부담스럽고 어색했습니다. 나 혼자 하면 더 빠르고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 것을 굳이 여러 명과 함께 해야 하는 건가, 답답하기만 한데 내가 이걸 통해 뭘 배울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샘물에서 6년을 보내며 이제는 이 훈련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면서 함께 완주하였을 때의 기쁨을 경험했고, 나 혼자서 완벽하다는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협력하는 기쁨과 보람을 배울 수 있어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 사실 처음에는 샘물의 이런 목표가 부담스럽고 어색했습니다. 나 혼자 하면 더 빠르고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 것을 굳이 여러 명과 함께 해야 하는 건가, 답답하기만 한데 내가 이걸 통해 뭘 배울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샘물에서 6년을 보내며 이제는 이 훈련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 두 번째로, ‘자아를 부수는 법’을 배웠습니다.

12학년 담임선생님이 매일 강조하셨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금 내가 자아동네에 있는지 하나님나라에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내려 하는 자아동네에 있을 때, 저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매일 쌓여가는 부담들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왜 힘든지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더 스스로를 채찍질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게 맡겼을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고 경험한 후, 저는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찬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수험에 대한 스트레스로 가득할 12학년을 즐겁게,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이 제 삶을 완전히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샘물에서 ‘믿음 공동체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미워서 거부해도, 나의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거부해도, 심지어 귀찮아서 거부해도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신기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외면하는 저를 부르실 때 주변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예배 때 눈물로 찬양하는 친구를 통해, 설교 중 목사님의

“ 신기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외면하는 저를 부르실 때 주변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예배 때 눈물로 찬양하는 친구를 통해, 설교 중 목사님의 날카로운 한 마디를 통해, 12학년 수요 기도회의 기도제목을 통해, 복상 나눔을 하는 친구의 고백을 통해, 목장모임 때 선생님의 간증을 통해, 저는 끊임없이 도전을 받았고 이로 인해 지금까지 하나님께 붙들려 올 수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한 마디를 통해, 12학년 수요 기도회의 기도제목을 통해, 복상 나눔을 하는 친구의 고백을 통해, 목장모임 때 선생님의 간증을 통해, 저는 끊임없이 도전을 받았고 이로 인해 지금까지 하나님께 붙들려 올 수 있었습니다.

졸업할 때가 되어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들 중 하나가 '샘물 배움 공동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중보하며 서로의 하나님을 나누었던 10기 공동체를 만난 것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기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예수 제자의 삶을 훈련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 샘물 10기 졸업전야제 한 장면\_애들이 울지마**



이제 샘물 10기가 바다가 되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10기 친구들이 샘물에서 배운 것들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예수 제자 되길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샘물에 남아있을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졸업하기 전까지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 많이 쌓으면 좋겠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주변의 소중한 친구들, 선생님들, 부모님,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의지하길 바랍니다. 후배들이 지금까지 배운, 그리고 앞으로 배울 샘물의 가치들을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길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해주신 부모님들, 선생님들, 선후배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답사를 마치겠습니다.



## [학부모 감사나눔 1]

# 7년 전 선생님의 말

샘물중고등학교 12학년 학부모 (임지혜 학생 어머니)

(편집자주) 샘물중고등학교의 마지막 학부모교육은 학부모님들의 나눔과 고백으로 채워집니다.  
2023년12월12일(화) 진행된 2023학년도 마지막 학부모교육의 고백 중 일부를 담습니다.

고요합니다.

간증을 준비하며, 저희 아이가 예비 중등부터 12학년까지 지낸 7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감사이고, 다음은 기대가 떠올랐습니다. 우선,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 보려고 합니다. 감사는 크게 학교에 대한 감사, 선생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같은 상황을 함께 지나온 학부모님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먼저, 학교에서는 받은 복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학교가 자신의 정체성과 믿음, 진정한 사랑의 의미, 결과보다 과정 중심의 교육 등을 강조하고, 일반 학교와는 다르게, 능동적이며, 자율적으로 따르도록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러한 교육의 바탕은 우리가 샘물중고등학교를 처음 만났을 때 접한 사명 선언문에도 잘 나타나 있고,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함께 작성하는 자기경영서를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때론, 저도 초심과 다르게, 사교육을 받고 싶은 유혹도 들고, 입시 때는 컨설팅 업체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입학 전 서약한 것을 기억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원안을 따르는 학교에 대한 신뢰와, 성경을 중심으로 한 학부모 교육 덕분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믿음을 지키고, 유혹에 대한 마음도 떨칠 수 있었음에 감사 드립니다.

**두 번째는, 샘물의 모든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샘물의 선생님들은 등교부터 하교까지의 시간과 더불어, 학교 모든 행사 때마다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향한 눈길과 손길이 머물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저보다 제 아이의 성향을 더 잘 아시며, 아이도 선생님을 부모님처럼 동등하게 신뢰하는 것을 볼 때, 선생님에 대한 감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 펜데믹 시기를 겪으며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는 더욱 커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 격리, 언택트 등 처음 경험하는 전시와 비슷한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없는 텅 빈 교실을 지키며 철저히 준비된 수업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에서 학생을 향한 선생님들의 사랑과 열정을 보게 되는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년 동안 끈끈한 동역자로, 같은 시간을 지내온 샘물의 학부모님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각자 믿음의 과정과 크기는 다르지만, 받은 은사대로 학교와 이웃을 섬기는 모습에 많은 감사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셨던 학년 대표님, 개인적인 어려운 상황에도 한 끼도 놓치지 않고 아이들의 식사와 간식을 책임져 주신 식당 팀장님, 겨울 추위와 여름 더위를 마다하고 복도에 앉아 자주 감독을 섬겨 주신 학부모님, 그 외에도 때마다 십시일반의 도움을 주신 학부모님들이 계셨기에 더욱 풍성하고 행복한 12학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때론, 저도 초심과 다르게, 사교육을 받고 싶은 유혹도 들고, 입시 때는 컨설팅 업체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입학 전 서약한 것을 기억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원안을 따르는 학교에 대한 신뢰와, 성경을 중심으로 한 학부모 교육 덕분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믿음을 지키고, 유혹에 대한 마음도 떨칠 수 있었음에 감사 드립니다.

또 특별히, 12학년 학부모 기도회에 대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힘든 시기엔 위로와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고, 마음이 흔들릴 땐 함께 응원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시간을 기억합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기도회를 이끌어 주신 기도 팀장님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런 귀한 은혜의 시간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깊이 감사 드립니다. 같은 은혜가 있길 바라는 마음에 예비 12학년 학부모님들께서도 기도회에 꼭 참석하시라고 겸손히 청언 드립니다.

간증을 마무리하며, 학교에 입학할 때, 가족 면접을 진행해 주셨던 면접관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아이들의 신앙이 지금은 부족하고, 어리게 보일지 몰라도, 학교를 졸업할 때쯤엔 부모님보다 더 깊은 신앙심을 갖게 될 정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졸업을 앞두고 저희 아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신앙은 모두 샘물에서 자랐고, 샘물 공동체를 통해 섬김을 배웠으며, 샘물에는 대학을 위한 교육이 아닌 예수 제자를 키우는 교육이 있습니다.’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샘물이 바다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 시켜 가는 신실한 일꾼으로 담대히 서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에 입학할 때, 가족 면접을 진행해 주셨던 면접관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아이들의 신앙이 지금은 부족하고, 어리게 보일지 몰라도, 학교를 졸업할 때쯤엔 부모님보다 더 깊은 신앙심을 갖게 될 정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졸업을 앞두고 저희 아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 [학부모 감사나눔 2]

# 아버지 기도회, 은혜의 자리로

샘물중고등학교 10학년 학부모 (이정혁 학생 아버님)

(편집자주) 샘물중고등학교의 마지막 학부모교육은 학부모님들의 나눔과 고백으로 채워집니다.  
2023년12월12일(화) 진행된 2023학년도 마지막 학부모교육의 고백 중 일부를 담습니다.

저희 아들은 2023년 편입생으로 샘물배움공동체에 입학하였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이룬 시간에 만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에 샘물배움공동체에 입학하고 싶었고, 긴 시간동안 입학전형을 준비했었습니다. 입학결정이 발표된 그 주 출석교회 담임목사님 주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샘물이 되어 영생토록 마르지 않는다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들으며 샘물배움공동체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함께 계획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애굽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명령을 듣고 어린양을 잡아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안방에 바른 이스라엘 모든 가정에서는 유월절이 재앙이 아닌 장자가 죽지 않는 기적의 사건이 되었던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양을 잡고, 각 가정에서 자녀를 살리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양의 피를 발랐던 것처럼 샘물 아버지 기도회는 저에게 삶의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지었던 저의 죄와 부끄러운 행동들을 이스라엘 회중들이 함께 양을 잡았듯이 여러 아버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저마다 죄를 고백하고 자녀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처럼, 부족하지만 아들 정혁이

와 샘물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 기도의 피를 바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모두 중년이 되어 아버지의 신분으로 모여 리더 팀장님의 기타 반주와 함께 찬양하고, 각자의 삶 가운데 걱정의 무게들을 내놓는 다른 아버지들의 나눔을 들으며, 나만이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가 아니라는 것에 안심할 수 있어 저의 고난과 어려움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샘물배움공동체에서 생활하는 동안 신앙의 가치관을 세워가고, 믿음을 적용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건강하고, 성적도 가능한 만큼 아주 많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동일한 마음이 우리 아버지들에게 있다는 것을 아버지 기도회에 참석하며 알기에 아버지들 또한 삶의 여정 속에 귀한 동역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난 학부모 연합 예배때 달 쌤이 전해주시는 역대상 말씀 다윗과, 오르난 타작마당에 대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범죄함으로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제단을 쌓기 위해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타작마당을 산 다윗의 모습에서 내가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하는 타작마당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을 때 2주마다 한번 있는 아버지 기도회 모임에 우선 순위를 두고 참석하는 것이 적용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모두 중년이 되어 아버지의 신분으로 아버지 기도회에 모여 리더 팀장님의 기타 반주와 함께 찬양하고, 각자의 삶 가운데 걱정의 무게들을 내놓는 다른 아버지들의 나눔을 들으며, 나만이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가 아니라는 것에 안심할 수 있어 저의 고난과 어려움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은혜와, 공감, 기도 응답이 있는 아버지 기도회에 이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아버님들을 초대하기 원합니다. 중년의 시기를 함께 보내며 샘물 공동체의 동역자로 함께 즐거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

“... 타작마당을 산 다윗의 모습에서 내가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 하고 사야하는 타작마당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을 때 2주 마다 한번 있는 아버지 기도회 모임에 우선 순위를 두고 참석하는 것이 적용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은혜와, 공감, 기도 응답이 있는 아버지 기도회에 이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아버님들을 초대하기 원합니다. 중년의 시기를 함께 보내며 샘물 공동체의 동역자로 함께 즐거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 [6학년 졸업생의 고백 1]

#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

은혜샘물초등학교 6학년 졸업생 정다해

(편집자주) 2023년 12월29일(금), 은혜샘물초등학교 일곱번째 졸업예배가 있었습니다. 38명의 졸업생을 대표해 두 명의 학생이 졸업생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무대 위에 올랐는데요. 은혜샘물초등학교를 향한 학생들의 마지막 마음을 전해 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은혜반 정다해입니다.

저는 부모님과 은혜샘물교회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은혜샘물유치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유치원 때는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고, 맛있는 급식을 먹는 것이 마냥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마을모임을 하면서 공동체성을 키워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어린 저에게도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언니오빠들이 하던 '마을지기'는 항상 저도 정말 해보고 싶은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을지기를 제가 맡은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마을지기를 하면서 리더십과 책임감을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끝



까지 저를 도와 마음모임을 잘 해내준 동생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기독교 학교를 다니면서 매일 아침마다 코람데오를 하고 성경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전교생이 다함께 모여 연합예배를 드리는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은혜샘물초등학교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자녀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학교였습니다.

성경 시간 외에도 사회, 과학, 영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것도 특별했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명확하게 알게되었습니다. 학교 생활과 선생님들의 사랑을 통해 저는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해왔습니다. 너무 소중하고 축복받은 시간이었습니다. 은혜샘물초등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면 어쩌면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학교를 통해서 저를 빨리 만나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의 6학년 졸업생들 모두 저와 같은 마음일 것 입니다.

졸업생 모두가 새로운 중학교에서도 지금까지처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찬란하게 빛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독교학교를 다니면서 매일 아침마다 코람데오를 하고 성경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전교생이 다함께 모여 연합예배를 드리는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 [6학년 졸업생의 고백 2]

# 참 감사한 분들을 만난 곳

은혜샘물초등학교 6학년 졸업생 신다영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샘물반 신다영입니다.



저는 1학년 때 제 쌍둥이와 은혜샘물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했을 때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

는 생각도 했구요. '이 학교가 나랑 잘 안 맞으면 어떡하지?' 라는 등 1학년을 온갖 걱정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과 다르게 많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저를 반갑게 반겨 주어서 덕분에 친구들과 친해지기도 쉬웠습니다. 또 저를 이상하게 보기보단 재미있고 밝은 사람이라고 긍정적으로 봐주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먼저 저에게 이야기를 걸어주고 먼저 웃어주거나 저를 반겨주며 다가와준 친구들 덕분에 긴장이 풀리기도 했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저를 반겨주는 사람도 많아졌고 학교를 가는것이 항상 설레고 좋았습니다. 3학년때부터는 1,2학년 때 보다 더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마다 늘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었고 마음이 안정적으로 변하면서 편해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놀고 쉬는 시간에 장난감으로 놀거나 그림 그리며 노는 것도 즐거운 추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끔 싸우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였지만 결국 서로를 용서하고 다시 잘 지내는 학교 생활이었기 때문에 은샘초에서의 학교생활은 항상 행복했습니다.

“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 학교가 나랑 잘 안 맞으면 어떡하지?' 라는 등 1학년을 온갖 걱정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과 다르게 많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저를 반갑게 반겨 주어서 덕분에 친구들과 친해지기도 쉬웠습니다. 또 저를 재미있고 밝은 사람이라고 긍정적으로 봐주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저는 은샘초를 다니면서 은샘초만의 특별한 활동을 많이 경험했던 것이 저의 자랑입니다. 2학년 때 다녀온 1박 2일 여행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환경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었고, 6학년 때 다녀온 졸업 여행을 통해 경청의 중요성과 협동심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6학년 때 마을 활동에서 마을지기라는 역할을 해내면서 책임감과 동생들을 챙겨 공동체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선생님들의 마음도 이해하게 된것 같습니다. 또 공동체 예배와 코람데오 시간, 성경 수업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샘초를 다니기 전까지만 해도 크리스천인 것을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저와 같은 크리스천 친구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이제는 당당하게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에 특히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은혜샘물초등학교에 다니게 해주신 부모님과 저희를 사랑으로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 학교를 졸업하면 마을 활동과 또 친구들과 함께 준비하던 조별 과제, 다양한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아쉽고 기억에 오래도록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 활동을 잘 따라준 베드로 마을 동생들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늘 학교를 위해 애써주시는 이사장님과 총괄이사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은샘초에서 소중한 가치를 배우게 하시고, 선한 청지기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6샘물 대표 신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샘초를 다니기 전까지만 해도 크리스천인 것을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저와 같은 크리스천 친구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이제는 당당하게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에 특히나 감사합니다.

## [후원 이야기]

# 받은 은혜를 흘려보낸 분들에게

## 2023년, 공동체가 후원자에게 전한 감사의 마음

(편집자주) 2009년 학교의 첫 시작부터, 샘물배움공동체는 기독교교육에 함께 해 주신 많은 후원자들의 뜻과 힘으로 학교가 세워져 왔습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샘물배움공동체에 함께 해 주셨던 후원자님들은 약 2천 여 명에 이릅니다. 지역사회 교회들과 후원자님들 덕분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가정도 기독교 교육을 이어갈 수 있었고 학교가 더욱 풍성해져 갈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후원자님의 이야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었습니다. 2023년, 공동체가 후원자에게 전하는 감사 프로젝트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봄, 미술시간에 학교의 역사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생들은 태어나기도 전 이야기였죠.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샘물배움공동체가 모두 한 마음으로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학교가 지금까지 세워지는데 함께 해 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학교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학생들도, 모르고 있던 학생들도, 후원과 후원자님들의 구체적인 이야기에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그 은혜를 나도 흘려 보낼 수 있기에, 공동체가 받은 은혜를 학생들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의 시작, 그리고 샘물과 함께 해주신 후원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 마음을 담아 후원자님께 드릴 도자기 마그네틱을 만들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0학년까지, 학생들이 만든 도자기 마그네틱들은 지난 11월 12월, 후원자님들께 우편으로 전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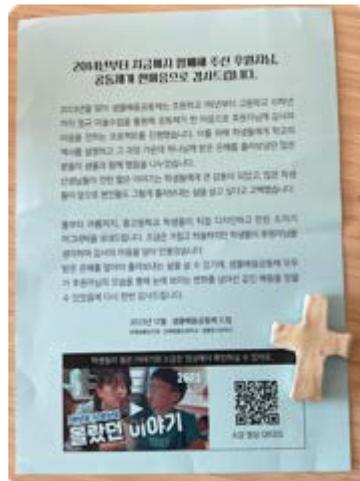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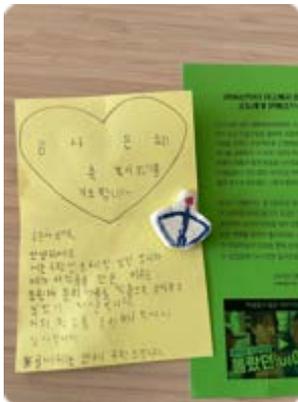


학교의 시작과 후원자님에 대해 선생님들이 전한 짧은 이야기는 학생들에게 큰 감동이 되었고 많은 학생들이 앞으로 본인들도 그렇게 흘러보내는 삶을 살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2023년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영상에 담았습니다.

### [영상] 1학년도 10학년도, 몰랐던 이야기



# 잘 받았다고 후원자님이 보내주신 사진들



## [후원보고]

2022년 후원보고서 [바로가기](#)

\*2023년 후원보고서는 2024년 5월 나옵니다.

[영상] 2022년 후원자님이 만들어주신 샘물의 변화



# 샘물배움공동체 교실 속 이야기

## SMCA 주간유치원

### 아껴두었던 유치원 풍경

2023년, 은혜샘물유치원의 일상을 전해드리고 싶어 시작했던 SMCA 주간유치원이 32화로 2023학년도를 마무리했어요.

주간유치원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씩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과 어린이들의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특권이 저에게 주어졌는데 찍으면서 참 많이 미소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2023년의 마지막 화는 4월 어느날의 풍경입니다. 오랫동안 두고두고 생각이 나는 장면이어서 마지막에 보여드리려고 아껴 두었던 풍경입니다.

## SMCA 주간유치원 제 32화



유튜브 채널에서 'SMCA주간유치원'을 검색하면  
이전 회차를 보실 수 있어요.



## 하나님께서 조선(대한민국)을 사랑하사

### 5학년의 세품아

(세상을 품은 아이들)

세품아(세상을 품은 아이들)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섬기기를 바라며 기획된 5학년의 활동입니다. 지난 10/12(목)-13(금) 이틀간 진행됐던 여정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조선(대한민국)을 사랑하사"였어요. 서대문형무소, 양화진 외국인선교사 묘원, 100주년기념교회, 아펜젤러 기념공원 등을 둘러보며,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우리도 이웃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세품아를 위해 미리 마음을 준비해 왔다고 해요. 코람데오(아침 말씀 묵상) 시간마다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서대문형무소의 역사와 양화진 묘원에 잠드신 선교사님들의 일생을 알아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현장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눈빛이 진지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보며 학생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녀온 소감을 글로 작성했는데요. 그 중 두 편을 소개합니다.

## 내가 크리스찬이 된 이유

5학년 김태윤

첫째날은 진짜 감동적이었는데, 감옥에 독방과 고문들을 겪은 우리 조상님들에게 너무 감사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이 기적같다.

둘째날 나는 그저 너무 좋았다. 이유는 둘째날에도 평온히 잘 지내고 양화진 외국인 묘원에서 나(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하나님(예수님), 선교사님들이 너무 감사했다. 내가 크리스찬이 된 이유가 이것이란 것을 알았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이 너무 감사했다. 점심 때도 자장면이 맛있었다. 절두산의 뜻과 천주교의 생각과 마음을 알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이 너무 감사했다.

세품아를 통해 내가 느낀 소감은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너무 감사했고 또 한편으로는 슬펐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은 나는 희생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고 노력하겠다. 그래도 어쩔수 없을 때는 희생하겠다. 그리고 희생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끔 막으려고 노력하겠다. 나는 내 방식대로나 세상의 방식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 세상을 사랑하겠다. 이 세상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세상을 보존하고 세상이 더 험난해지기 전에 나는 이웃을 도와주기,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는 등 습관을 들여야겠다. 혹여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못해도 다시 되돌릴 수 있게 노력하겠다. 나는 세상이 힘들어도 나는 최대한 세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는 이제 세상을 이렇게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야겠다.

##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

5학년 김시윤

처음에는 세피아라고 해서 놀러갈 줄 알았다. 마냥 신나고 즐거울 것 같아 기대했다. 하지만 나의 기대와는 달리 서대문 형무소, 선교사님들의 묘지, 절두산 등등에 간다고 해서 솔직히는 조금 아쉽고 실망했다. 우리 전에 선배들은 에버랜드를 갔다고 하니 많이 실망하고 싫었다.

하지만 막상 서대문 형무소에 갔을 때 오길 정말 잘 했다고 생각했고, 지금의 우리와 우리나라를 위해 힘써주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에 감사했고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했다. 그분들은 결코 허무한 죽음이 아니고 의미있고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갔을 때 우리나라를 위해 도와주시고 순교하신 외국인 선교사님이 엄청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느꼈다. 왜 우리나라에 오셔서 순교하신 것인지 궁금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에 오셔서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 병원, 학교를 세워주셔서 감사했다. 나도 앞으로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고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은!

1.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기. (감사제목, 회개, 이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
2. 길에 쓰레기 버리지 말고 길에 쓰레기가 보이면 주워서 분리수거 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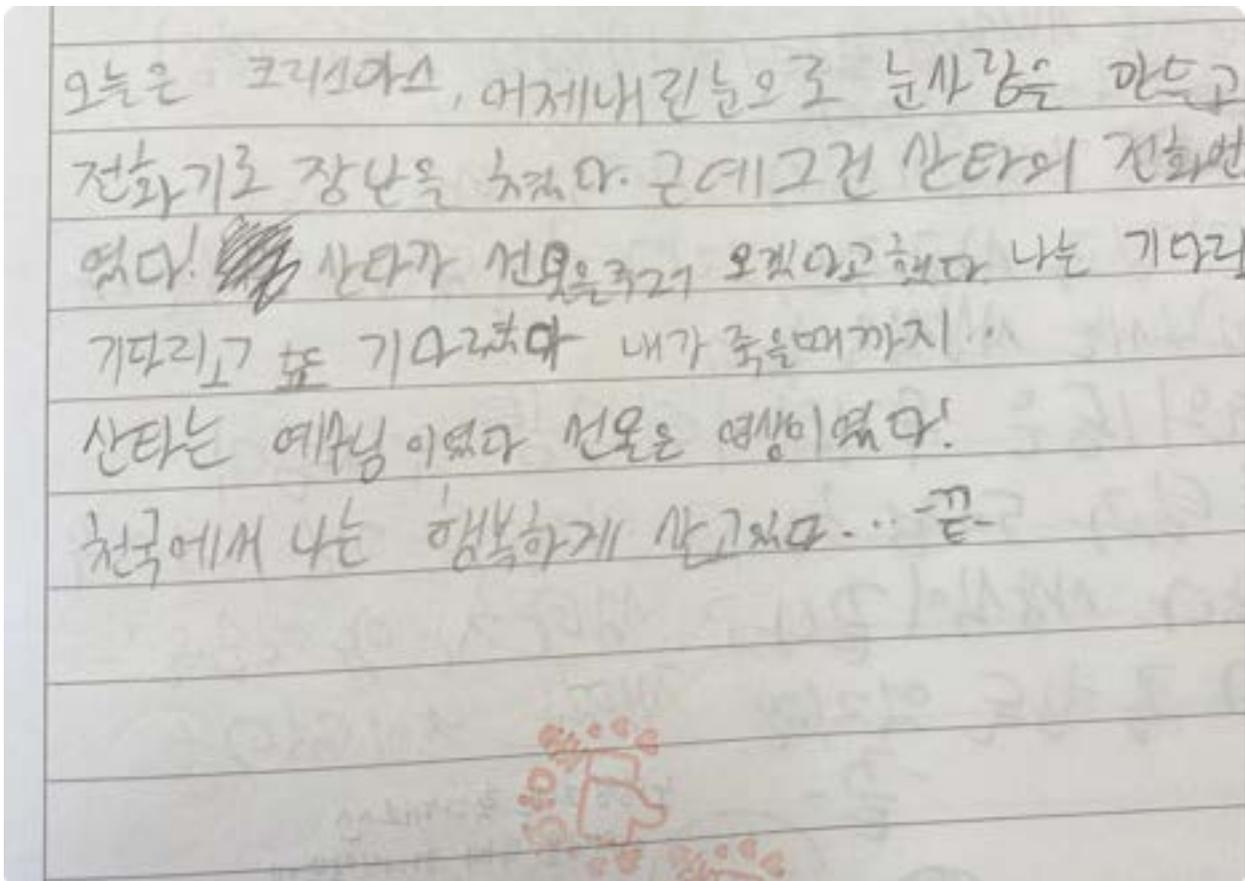
3.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사랑하는 방법은 부드러운 말하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기 등등.)

4. 전기, 물, 물건 등등등 아껴쓰고 절약하기. (아껴쓰고 절약하는 방법은 샤워할 때 물을 계속 틀어놓지 말기, 보거나 쓰지않는 것들은 끄기, 물건을 함부로 다루지 않기.)



### 3학년의 미션 주제일기

초등 3학년 주제일기. 제시어들 중 몇 단어를 골라 글을 쓰는 미션이 주어졌는데요. 눈사람, 선물, 산타, 전화기를 제시어로 만든 학생의 스토리가 인상적이었으며 선생님께서 한 편의 주제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 3D 디자인으로 펼쳐진, 누군가를 돕는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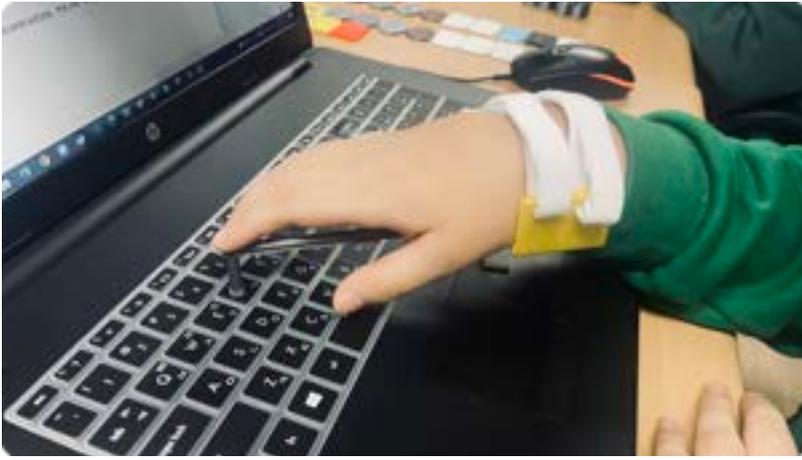
### 5학년의 IT 수업

2023 보조기기 아이디어 공모전 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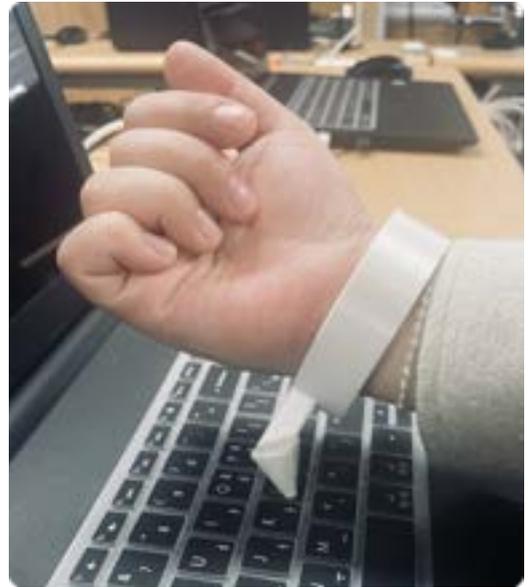
은혜샘물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들은 매주 2시간씩 IT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학기 5학년들은 3D 디자인 시간을 이용해 장애인과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보조기기를 기획하고 만들어 공모전에 출품도 해 보았습니다.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와 나사렛대학교산학협력단 NADO메이커스페이스사업단에서 진행한 2023 보조기기 아이디어 공모전에 3D디자인을 배우는 5학년 학생들이 참여를 준비하였고, 기간내 완성된 12명의 작품으로 공모전에 응모, 5학년 김지훤 학생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지훤 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상자가 성인들 뿐이어서 시상식장에서 지훤 학생의 인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

김지훤 학생의 소감과 함께 우리 학생들의 참가작을 소개해 드립니다.



손가락이 없는 분을 위한 손목 클릭커



손목에 끼우는 클릭커



다양한 각도 조절 폰 거치대



직접 만드는 점자판 모듈



손가락에 끼우는 이쑤시개



손가락에 끼우는 손가락 보조기구



손목에 끼우는 찻솔 보조기구



손가락 연필 끼우개



전동휠체어  
손목 조이스틱



지우개 보호케이스



손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아이스크림 꽃이



키보드 손가락 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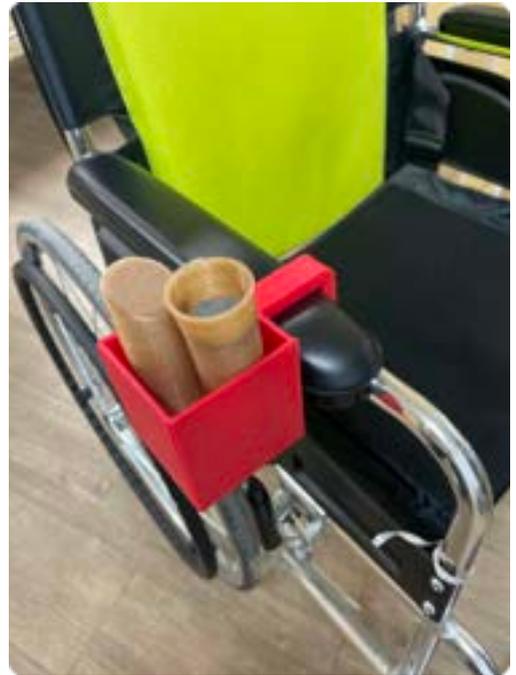
점자 게임



휠체어 양치컵



휠체어 컵홀더



휠체어 거치보관함



휠체어 옷걸이



캐릭터가 있는 전동휠체어 조이스틱



점자 주사위

2023 보조기기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상

## "손이 다쳤을 때의 불편했던 기억에서 시작했어요"

5학년 김지훈

보조기기 아이디어 공모전은 IT 수업 중 선생님께서 참가해보라고 권유해주셔서 좋은 경험도 해볼 겸 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기기를 만드는 공모전인 만큼 수업을 하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어려움은 무엇일까 공감의 마음으로 이곳저곳 생활 장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수업 외의 시간에도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드디어 만들고 싶은 작품이 떠올랐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열심히 디자인한 제 작품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쉽게 다치는 손이 하는 일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주로 공간을 이동할 때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고 닫는데, 손이 다쳤을 때 문 열기가 쉽지 않았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저의 작품은 '문을 여는 발판'입니다. 사용법을 설명하자면 문 아래쪽에 발걸이를 만들어 고무 밴드로 손잡이와 발걸이를 연결한 후, 발걸이를 발로 밟으면 됩니다. 손잡이가 돌아가



손 없이도 쉽게 문을 열 수 있는 것이지요.

만드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니다. 작품이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하던 도중 발 걸이가 부러지고 말았거든요. 감사하게도 IT 선생님께서 다시 작품을 프린팅 해주셨고 제때에 작품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부러진 원인에 대한 문제점을 찾지 못한 조금의 아쉬움은 있었습니니다.

그런데 큰 의미와 기대 없이 시작한 저의 첫 공모전 출품은 시간이 지나 크나큰 기쁜 소식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수상작품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너무나 설레었고, 상을 받으러 경기도 장애인 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수상을 앞둔 채 너무도 긴장되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정말 기쁘고 뿌듯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더 넓은 눈으로 세상을 살피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 # #



## 2023년의 성품수업 속으로

### 은혜샘물초등학교 학생들이 창의성, 부지런함, 지혜를 배우는 방법

은혜샘물초등학교는 성경수업을 통해 성품수업을 합니다. 성품수업은 24가지 성품을 한 학기에 4성품씩, 1년에 8성품씩, 3년에 걸쳐 커리큘럼을 개발하였고, 성품과 관련 성경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관련된 학습활동을 통해 적용하고 실천하는 수업입니다.

특히 2023년에는 경청, 믿음, 창의성, 인내, 부지런함, 만족, 순종, 지혜 등 8가지 성품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의미가 남달랐던 세 가지 수업을 소개해 드려요.

# 창의성

## 231명 전교생이 함께 만든 책 글자로 보는 성경이야기



2023학년도 여름학기, 은혜샘물초등학교 성경 성품수업의 주제는 '창의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창의성'이란,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지요. 창의적인 방법으로 누군가를 돕는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성경 선생님의 아이디어에, 미술과, 통

합지원 선생님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있는 동생들과 통합지원 친구들을 위한 한글 자음 책을 만들기로요.

아이디어는 ‘글이 된 책’ (이애란 작가님, 성서유니온 출판사)이라는 책이었어요. 학생들이 직접 만든 글과 그림이면 컨셉을 사용해도 된다고 작가님과 출판사가 허락해주어서 이 책이 시작될 수 있었답니다.

그리하여 1,2학년이 첫 단추를 꿴고 4,5,6학년이 몸통을 만들어 3학년에게, 그리고 다시 4,5,6학년을 거쳐, 마지막 3,4학년으로 이어졌던 책 발간 프로젝트. 통합지원실 학생들도 모두 참여해 은혜샘물초등학교 231명 모두가 함께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 만든 책 ‘글자로 보는 성경이야기’가 8월 마지막 날 세상에 나왔어요. 지난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학생들의 이야기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 부지런함

## 7시 45분 부지런한 아침기도회

2023년 9월의 성품수업 주제는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함을 배우면서 선생님이 4-6학년들에게 제안하신 게 있어요. 부지런히 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보자고요. 선생님의 제안에 4-6학년 뿐 아니라 저학년들도 함께 했답니다. 늦더라도, 비가 와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간 아침기도회를 했답니다. [영상 보러가기](#)



# 지혜

은샘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3학년도 성경수업, 마지막 성품수업 주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선생님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은샘상담소가 문을 열었어  
요. 1학년도, 6학년도, 학생들이 해결해주는 선생님들의 고민. 내용도 해결책도  
놀랍습니다. [영상 보러가기](#)



## 두 권의 책과 함께 한 9학년의 샘물수업

샘물중고등학교는 7학년부터 11학년까지, 성경-미술-목공-연극-미디어-사회-국어-진로 등 다양한 교과와 선생님들이 함께 하는 융합수업인 '샘물수업'을 진행합니다.

9학년의 샘물수업은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독서 융합 수업입니다. 일년에 두 권의 책을 깊이 있게 읽으며 성찰한 내용을 서클을 통해 함께 나누는 한편, 이를 연극, 미술, 영상 등으로 표현합니다.

2023학년도 봄여름학기에는 '로빈스 크루소'를 읽었습니다. 인생의 선택, 소중한 일상, 함께 걷는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표현하며 이를 디오라마 영상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가을겨울학기에는 '순례주텍'을 읽으며 가족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고 책이 담지 못한 이야기를 짧은 단막극으로 만들어 연극으로 올렸습니다.

9학년들의 활동 중, 일상의 소중함을 담은 시를 몇 편 골라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시를 통해 학생들이 표현한 감사의 순간입니다.

## 그렇지 않을 수도

튼튼한 두 다리로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시리얼과, 신선한 우유와, 잘 익고 흠집 없는 복숭아를 먹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개를 데리고 언덕 위 자작나무 숲으로 산책을 나갔다  
아침 내내 좋아하는 일을 했다  
정오에 짝과 함께 누웠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우린 함께 저녁을 먹었다  
식탁 위에 은촛대를 놓았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벽에 그림이 걸린 방 침대에서 잤다  
그리고 바로 이 날처럼 또 다른 하루를 계획했다  
하지만 난 안다. 어느 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9학년 임태빈

엄마가 나를 깨우고 인형이 내 눈앞에 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학교 가는 길 친구와 만나 걸어간다  
걸어가는 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한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벚꽃과 개나리가 나를 반긴다  
내 탁트인 시야에 한 폭의 그림이 들어온다  
풍성한 꽃망울과 찬란한 햇빛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시계가 가는 속도 달력이 가는 속도  
모두 벅차지만  
매 때에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값지게 느껴진다

하지만 난 안다. 어느 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 그러지 못 했을 수도

감사한 일들이 넘쳐날 수 있는 하루하루가 있다.  
그러지 못 했을 수도 있는데

다시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즐거운 추억들이 있다  
그러지 못 했을 수도 있는데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지 못 했을 수도 있는데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들이 있다  
그러지 못 했을 수도 있는데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  
그러지 못 했을 수도 있는데

나를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이 있고 나는 그 분을 안다  
그러지 못 했을 수도 있는데

이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아닌  
그러지 못 했을 수도 있는 것들 뿐이다

## 그런 일이 나에게 없었을 수도 있었는데

9학년 황지우

학교에 나가면 친구들과 담소를 나눈다  
그런 일이 나에게 없었을 수도 있었는데

봄이 오고 어설피게 핀 벚꽃 한 그루를 보고서도  
"예쁘다" "사진찍자" 하며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었다  
그런 친구들이 나에게 없었을 수도 있었는데

해외여행을 곧 떠나는 가족이 떠나기 전 나에게  
필요한 것은 없냐며 물어봐준다  
그런 가족이 나에게 없었을 수도 있었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 오늘도 행복했다  
하지만, 난 안다 어느날 이런 일이 나에게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 10학년 "이것은 광복 후 그 시절 신문"

### 10학년, 채만식 작가의 '미스터 방'을 읽고

10학년의 국어 시간. 가을학기에 채만식 작가가 쓴 『미스터 방』을 함께 읽었어요.

이 작품은 주인공 방삼복이 광복 직후 혼란기를 기회로 삼아 미군의 통역관이 되면서 권세를 누리는 세태를 풍자하고 있는 소설인데요. 특히 일제 강점기에 친일파로 호의호식하던 인물이 주인공에게 청탁을 하는 상황이나, 사소한 실수로 권세를 잃게 되는 주인공의 처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광복 직후 미 군정기의 혼란한 서울을 배경으로 기회주의자들이 득세하는 부조리한 사회상을 비판하려는 작가의 의도도 엿볼 수 있지요.

10학년 친구들이 잠시 그 시절의 기자가 되어보았습니다.  
탐사보도부터 기획 취재, 인터뷰, 제품 광고까지 광복 직후의 상황을 완벽하게 재현한 신문들을 만나볼까요? - 국어과 모듈샘

# 시나브로일보

## (단독)房씨 그의 운명은..

1947년 6월 11일 오후 2시경 방00씨는 양치를 하고 빨을 때 미군의 머리에 빨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방00씨를 만나보았습니다.

취재내용

'아니 제가 돈이 이렇게 많아본 적이 처음이라 다른사람 앞에서 멋있어 보이고 싶은 마음에 허세를 부리다가..' 방00씨는 많은 돈을 자랑하고 싶어 허세를 부리다가 가지고 있는 돈도 다 날려버렸습니다.

지금 방00씨는 도주한 상태라고 합니다.

오른쪽 사진처럼 생김분을 보시면

025-2513-1284로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우기자



# 오늘의 家

- 과거 백선봉의 집을 분석하다. -



백선봉은 백두산의 아들로, 광복 전 7년 동안 주재소와 경찰서를 견근하여 부를 축적하고 재물을 쌓았었다는 기록이 있다.

←과거 백선봉의 저택

그의 집에서는 다량의 광목, 고무신, 자카다피, 정종 등이 발견되었고 어떤내의 재물과 비단 등도 많이 있었다. 이러한 것들로 백선봉의 에피타피아한 부와 재산이 나타난다.



-경다린기자

# 마법의 美製치약 이를 젊게 합시다

달달한 딸기, 사과 두가지 맛으로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 좋아합니다



마법의 美製 치약은 획기적 신제품 입니다.



# 조선어 학원

일본이 패전했는데 돌아갈곳이 없다고요?

조선에서 일자리를 구해야되는데

조선말을 할줄 모른다고요?



그렇다면 조선어 학원에 오십시오 !!

이지후기자

# DAILY BUGLE



<—미스터 방(좌), 미스터 방의 저택(우)

## 미스터 방, 찰리다

지난달 S소위의 통역관이던 방씨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S소위가  
 원관에서 인사할 하자,  
 창문에서 양치수를 뵈는 것으로 전례했습니다.  
 방씨는 S소위에게 사과를 거듭 반복하고 무를까지 끊었지만,  
 S소위는 욕설을 하고 가차없이 방씨에게 해고 선고를 내린 것이  
 모 전해졌습니다.

S소위에게 통역관이 저지른 일에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2(s소위)

Q. 방삼복씨가 통역을 해준다면 왔을 때 기회를 잡으려고 일부러 꾸민 것을 정말  
 몰랐나요?

A. 사실 알았습니다. because 그 people이 그렇게까지 간절히 help해달라는데 그걸  
 어찌 no!하겠습니까?(웃음) 나도 통역이 need하기도 했구.

Q. 방삼복씨에게 좋은 집 등의 갖가지 좋은 것들은 어떻게 주게 되셨나요?

A. 아이--아파도 말했잖습마 기자양반 그 people이 되게 간절해보였다니까?  
 help해달라 그 people을 내 hand으로 success시킬 기회가 어떻게나 my eyes앞  
 에 see하는데 그걸 못 해주겠나?

Q. 그런 방삼복씨가 성공했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A. 아따--! Feel so good!!!!!!!  
 뭐라 어루어 말할 수가 읍지에

Q. 방삼복씨가 양치수를 뵈었을 때  
 어땠나요?

A. mistake인 걸 know하는데 내가  
 뭘 어찌했나-아마 근데- 대그뻘을  
 못개버리고 살을 정도로 angry하긴  
 하드라고 내가 살다살다 그럴 줄은  
 몰랐지 뭐야 (웃음) 근데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나왔어서 sorry sorry하  
 네



S 소위



시민인터뷰

Q. 방삼복씨를 아시나요?  
A. 알다마요!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지는 모르겠지만 일본과 중국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다 하더라고요. 인생역전을 경험한 이를 어찌 모르겠습니까?

Q. 방삼복씨가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A. 아무래도 배가 아프긴 하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었습니까? '고생한 만큼 복을 받는구나' 생각했죠

Q. 최근 방삼복씨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A.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암직을 하다 암컷을 낳았는데 그 소위가 맞았다고? 그 일로 방씨가 골짜기 팔해머었다 하더라고요

Q.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자업자득이죠 뭐. 사실이 딱히긴 하지만 어찌겠습니까? 작은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고 남에게 과시를 멈춰야 할지 알아야겠어요.

하인인터뷰

Q. 어떻게 해서 방삼복씨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나요?  
A.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막막합니다. 돈을 벌 방법이 없어서 풀이라도 팔 생각으로 일을 찾고 있었는데, 아니 이게 웬걸 어떤 으르렁이한 대저택에서 가정부를 모집하고 있지 뭐니까? 기회다 싶어서 그때부터 일하게 됐습니다.

Q. 방삼복씨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A. 첫인상은 뭐 특별한건 없었습니다. 그냥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는 평범한 부자구나 생각했습니다.  
Q. 처음 s소위를 봤을땐 어땠나요?  
A. 어떤 외국인이 이 집 쪽으로 오길래 처음에 저는 미스터 방씨 친구분이시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스터 방씨께서 문을 여시더니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시는 거지 뭐니까? 그때 들었던 생각이 미스터 방씨 같은 부자도 높은 사람 앞에서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Q. 방삼복씨의 양치통 사건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A. 사실 저도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요. 그런 정말 식겁했습니다. 외국인이 쌍욕을 하면서 미스터 방씨를 때리는데 얼마나 무섭던지... 2층에서 지켜보던 제 오금이 다 떨렸대구요...

조선, 일제의 간섭에서 벗어나다?!

약 35년간 이루어진 독재 아래에서 해방된 기쁨을 누리는 시민들(아래)



속속상식! 오늘의 四字成語



호가호위 狐假虎威  
::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威勢)를 빌려 호기(豪氣)를 부린다」는 뜻으로, 남의 세력(勢力)을 빌어 위세(威勢)를 부림

1945년 8월 15일, 조선이 일제의 통치 아래에서 벗어났다. 시민들은 모두 길거리로 나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있다.(사진) 하루가 지난 오늘도 어제의 열기는 꺼지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와 가깝게 지내며 동포들의 목숨을 빼앗아 삶을 연명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오는 18일에 시민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중략)



## 11학년, 2023 나의 10대 뉴스

2023년, 어떤 한 해를 보내셨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모든 것에 감사하고 곁에 있는 친구들을 돌아보며 11학년이 '나의 10대 뉴스'를 꼽아 보았습니다.



## BREAKING NEWS

# 차 인생운영,이대로 괜찮은가.. 공부율 초딩이래 최저치 갱신

긴급 기자회견통해 자주참여 선언..외부의 압박 없었나..

와중에 하던게임 만렙달성..무늬만 수험생 지적도..

"음아은 <sup>극</sup>극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  
-앨범을 통으로 돌려야 하는이유: 전문이기

올해 용돈 <sup>각</sup>자녀대비 소폭 상승한 1만원..간식값  
줄이상에 부담 높아져..

"모두가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길"  
샘물고등 청소년들 봉사길에 올라..

내년초 日방문예정.. "그만놀아라" 지적에 묵묵부답..

"샘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은혜"..하나님과의 관계 다져..

차신년사 새해에는 모두 행복하길

### SAEMMUL NEWS

# 2023 김고은 10대 뉴스

2023년, 일 년을 돌아보며



1. 샘물 비전트립의 부활!  
코로나 이후 첫 샘물 비전트립을 다녀오다.

2. 파란만장했던 샘지기&풀뿌리 활동

3. 김고은은 왜!  
28일간 교실 청소를 하게 되었을까?

4. 아프니까 청춘이다?  
계속되는 김고은의 발목부상

5. 13조와 마지막 국토순례를 함께하다!

6. 김고은의 뒤샘, 축제 MC 도전기

7. 올해에도 영어 말하기 대회 출전,  
이로써 5년 연속 출전 달성!

8. 충격적인 6월 모의고사 결과

9. 김고은의 체력증진 프로젝트,  
결국 실패로 이어져...

10. 11기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은  
11학년 체험학습



SMCA

샘물중고등학교 2023년

## 제 11회 독서마라톤 시상

### 씨앗(1,000쪽) 36명

7 고윤찬(2,070쪽)  
7 구하임(1,334쪽)  
7 권지오(1,212쪽)  
7 김성민(1,126쪽)  
7 김은우(2,646쪽)  
7 민서완(2,910쪽)  
7 박세아(2,620쪽)  
7 박승희(3,142쪽)  
7 박현진(2,827쪽)  
7 반해성(5,000쪽)  
7 서지영(3,321쪽)  
7 손시후(1,117쪽)  
7 송해민(1,468쪽)  
7 육성재(10,948쪽)  
7 이구하(11,615쪽)  
7 이산이(3,602쪽)  
7 이에나(1,747쪽)  
7 이에준B(1,387쪽)

7 정연서(1,806쪽)  
7 최이안(1,336쪽)  
7 표가온(1,228쪽)  
7 한별(2,193쪽)  
7 황규원(2,952쪽)  
8 심지울(1,000쪽)  
8 우하음(1,017쪽)  
8 윤수아(1,650쪽)  
8 이서원(1,001쪽)  
8 임소은(4,015쪽)  
8 조서윤(1,152쪽)  
8 허시온(1,247쪽)  
9 김소윤(1,110쪽)  
10 고은아(1,163쪽)  
10 김규민B(9,803쪽)  
10 김도린(1,236쪽)  
10 박윤호(1,448쪽)  
10 이건우(1,285쪽)

### 새싹(3,000쪽) 14명

7 오윤우(3,061쪽)  
7 정대영(3,012쪽)  
8 김시은(3,080쪽)  
8 김연하(3,226쪽)  
9 임태빈(3,727쪽)  
10 김다린(3,204쪽)  
10 이주원C(3,745쪽)  
11 주예담(3,030쪽)  
12 임지혜(3,908쪽)  
부모 김미선(3,424쪽)  
부모 백선영(5,101쪽)  
부모 이은옥(3,867쪽)  
부모 정은혜(4,008쪽)  
부모 홍영은(3,113쪽)

**들꽃(5,000쪽) 11명**

7 이승희(5,128쪽)  
8 김소원(8,788쪽)  
8 서예은(7,360쪽)  
8 최시온(5,196쪽)  
9 백한결(5,061쪽)  
9 정한결(5,075쪽)  
10 김시온(5,011쪽)  
10 손준호(5,142쪽)  
10 임세온(5,026쪽)  
10 하주호(5,207쪽)  
부모 전미라(6,074쪽)

**넷물(10,000쪽) 10명**

7 강윤우(15,244쪽)  
7 윤노엘(10,034쪽)  
8 김하랑(10,050쪽)  
8 송희찬(10,004쪽)  
8 유하숨(10,100쪽)  
8 조예준(16,755쪽)  
9 이에론(10,028쪽)  
10 기유진(10,031쪽)  
11 박소은(10,095쪽)  
부모 유수연(10,323쪽)

**바람(15,000쪽) 4명**

7 박은빈(15,238쪽)  
10 최이세(15,117쪽)  
11 최다해(15,086쪽)  
부모 조현철(15,038쪽)

**사자(21,097쪽) 2명**

8 김선겸(21,110쪽)  
8 정예담(21,123쪽)

**월계관(42,195쪽) 6명**

7 손지민(42,204쪽)  
8 지민준(43,193쪽)  
10 손지애(42,371쪽)  
부모 김민정(42,943쪽)  
부모 민혜경(42,195쪽)  
부모 홍석준(42,335쪽)

끝까지 완주한 모든 샘물인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

섬기는 예수제자  
샘물배움공동체

은혜샘물유치원 은혜샘물초등학교 샘물중고등학교

발행일 2024.02. 발행처 샘물배움공동체 발행인 윤만선  
1698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동로 156 (상하동 506번지)  
T. 031 714 7091 F. 031 8005 7093 E. [public@smca.or.kr](mailto:public@smca.or.kr) [www.smca.or.kr](http://www.smca.or.kr)